

#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꿈수 들통 조폭 18년 중형

1994년 서울 뉴월드호텔 살인범 중국 밀항 시기 조작해 허위자수 검찰, 27년치 계좌-접건기록 분석 공소시효 이전 2003년 밀항 확인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강남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범인이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범인은 사건 직후 중국으로 밀항,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귀국하면서 사건 22년이 지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자수했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노려 이같은 꿈을 쓴 것. 하지만 살인죄 처벌은 피하고 밀항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국내에서 생활하려던 그의 계획은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물거품이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일명 뉴월드호텔 조폭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조폭 간 다툼에서 상대 조직원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28년간 도주를 이어 온 미검자다.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은 1991년 10월7일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되자 전 서울 조직폭력배인 강서구 영산파 조직원들이 1994년 두목을 죽인 조직원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가 영똥한 조폭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영산파 행동대장이던 서씨는 1994년 12월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했던 광주 조폭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중 광주 동구 조직폭력배(신양OB파) 조직원 2명을 숨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씨 등은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

서씨는 군산에서 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도망쳤고 해외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서씨는 지난해 3월 귀국하며 중국 심양 영산관에서 "2016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자수해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서씨는 2016년 이 아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3년에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서씨가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시기에 중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씨와 관련자 15명의 약 27년치 계

좌를 추적 및 분석하고, 공범의 14년치 고도소 접견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 끝에 서씨의 거짓말이 들뜬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3년에 밀항했다면 자동으로 시효는 중단될 뿐더러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짐에 따라 광주지검은 서씨를 지난 6월 2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서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목을 복수하겠다는 보복 범죄에 나서 영똥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상당 기간 외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당시 범죄 조직상 지위, 다른 공범들의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검거된 공범은 공개수배 중인 정동섭(55)씨로 지난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2012년 입국한 뒤 영산파 도움으로 각종 사업을 하다가 서씨가 지난 6월 6일 검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1004들봄 서포터즈단 발대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농성1동 돌봄서포터즈단, 학생 등이 지난 15일 광주 관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가지 함께하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한 '1004들봄 서포터즈단 발대식'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회식 불참하면 진출...” 여전한 직장 내 괴롭힘

### 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분석

#회식에 불참하면 사유서를 제출해 내부 결재를 받도록 했습니다. 마치 업무시간처럼 통제하고 개인 사정을 적게 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회식 갑질'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제보 메일 중 회식 참여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8건으로 이중 62.5%인 30건이 '회식 강요' 사례였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8건(37.5%)은 '회식 배제' 형태였다.

여성 직장인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제보도 있었다. 직장인 A씨는 "부장이 2차 회식이 끝난 뒤 제계 단들이 3차 회식을 가자고 제안했다"며 "다른 직원과 함께 가자고 했지만 무조건 단들이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 자리에서 부장은 제 외모와 몸매를 평가했고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회식 관련 직장 갑질 감수성도 지난해보다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한 직장인 1000명 갑질 감수성 지표 조

사를 보면 '팀워크 향상을 위해 회식과 노래방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지표 점수는 지난해 73.6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회식문화 지표 점수는 73.4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50대 회식문화 지표 점수는 66.3점으로 20대와 격차가 7.1점에 달했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식을 둘러싼 갑압과 배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 술과 저녁 회식을 당연시 하는 낡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현 기자

## 광주서 70대 입원환자 추락... 대형병원 이송

광주의 한 병원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5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 한 병원에서 A(74)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신고를 받

고 출동한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락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A씨가 추락한 건물 3층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민섭 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공고문 제 2023-6호

###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신문)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기관장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과제 (5건)  
 <표 1> 추진 연구제안서 목록

구분	No.	과제명	연구비(천원)
조사연구	1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25,000
기술개발	2	미생물막과 전극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극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연구과제)	30,000
	3	안정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AI 기반 물 제어용 기술 최적화(연구과제)	30,000
	4	고도 폐수 처리 및 물 에너지 재이용을 극대화 위한 수전해-압력지연식막중류(PRMD) 융합 공정 설계 및 타당성 평가	30,000
산학연	5	태양광-생물전기화학반응 시스템을 이용한 Zero-에너지 배터리 및 이차전지 공정 폐수 내 유가금속 처리 및 회수법 개발	40,000 (센터: 25,000 /기업: 15,000)

\* 연구과제 및 연구비는 행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기간 : 2024. 4. ~ 2024. 11. (약 8개월)  
 \* 연구기간은 연구책임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23. 12. 4.(월) ~ 12. 18.(월), 18:00 까지

2023년 12월 4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4.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부 (파일명: 연구책임자명.hwp)  
 ※ 관련서식은 센터홈페이지(www.gjgec.or.kr)에서 다운로드

5.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자료실>센터규정>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규정, 2020년 9월 5일 기준)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간(2021~2023년) 2개 이상 18개 전국센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구책임자(연구원) 신청 불가

6. 신청서 작성방법  
 가.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을 참고하여 작성  
 나.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다. 산학연협력연구는 참여기업(제안서 참조)과 협의 후 제출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이메일(gjgec@hanmail.net; 제출기한 엄수) 또는 방문 접수  
 나. 접 수 처 : (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관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다. 문 의 처 : (062)530-3991 연구지원담당자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뀔다~!

성공을 부르는

##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 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 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재검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